

“식량자급률 2015년 28.8~32.8%가 목표”

쌀 협상 비준안 국회통과 등으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년 후인 2015년의 식량자급률 목표치(사료용 곡물포함)를 28.8~32.8%로 제시한 정부 용역보고서가 발표됐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정부가 농지보전과 식량수급 등 농정의 중장기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황민영) 주최로 12월 29일 열린 ‘식량자급률 토론회’에서 최지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보고를 통해 “2015년의 곡물자급률은 2004년의 26.8%보다 2.0~6.0%포인트 늘어난 28.8~32.8%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3월중 최종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 자료출처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올해도 FTA체결 늘어날듯

DDA가 난항을 겪는 동안 세계 각국은 양자간 협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경쟁적으로 추진해왔다. 단일한 무역 질서가 성립되기 전에 세계는 이미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 싱가포르와는 FTA가 발효된 상태다. 동남아시아연합(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협정을 체결했다. 이밖에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25개국과 논의 중이어서 2006년에 FTA 협정체결 국가는 더 늘어날 것 같다. 특히

미국과의 FTA 문제가 올해에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쇠고기 수입 재개와 스크린쿼터의 축소나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직접적인 통상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LG경제연구원은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2010년까지 한국·중국·아세안과 각각 FTA를 맺을 계획이며 이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 자료출처 : 서울신문 〉

홍콩 각료회의 폐막, WTO 협상 세부원칙 타결 시한 합의

12월 13~18일 동안 개최된 홍콩 각료회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종료됨에 따라, WTO 라미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국 각료들은 협상이 합의된 시한 내에 타결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각료들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2006년 4월 30일까지 농업 및 공산품 시장접근 협상에 대한 세부원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포트만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회원국들이 협상에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다면 2006년 4월 30일까지 세부원칙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12월 1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포트만 대표는 홍콩 각료회의가 기대 이하의 결과로 막을 내림에 따라 협상이 후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포트만 대표는 2006년 4월 30일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2006년 말까지 DDA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마저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각료회의에서 차기 WTO 각료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없다. 각료선언문에서는 2006년 7월

31일을 회원국의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으로 설정해 놓고 있지만, 이 시한이 지켜질지 여부는 회원국들이 4월말까지 세부원칙에 합의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 자료출처 : 농협조사연구소 〉

풍수해보험 시행 서둘러야

지난 12월 우리나라는 남부와 서해안지역의 폭설 피해로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지고 과수나무가 부러지는 등 농업부문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이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이 재난구호와 구제제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재해민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대책법을 통해 예방은 물론 재해 발생시 이재민의 생계구호와 복구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해 지원은 공공시설이 중심이었고, 사유시설과 재산에 대해서는 농수산업 분야에서만 일부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이번의 피해도 결국 자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농업부문의 피해가 가장 컸다. 그러나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지원은 시설비의 일부(순지원액은 35%)와 시설 내 농작물의 종자대 및 축산물 입식비에 해당하는 일부 지원금뿐이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재해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새로이 발족한 소방방재청에서는 그 동안 연구, 검토해오던 풍수해보험법을 국회에 상정했다. 풍수해보험은 농어촌에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보상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주택 피해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재난보험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보험이 시행되면 농어민들은 보험가입을 통해 농어업용 시설의 피해시 시설비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즉시 복구가 가능해진다. 시설 내의 농작물 피해는 현재 확대하고 있는 농작물보험이 담당하도록 하여 시설과 시설 내 작물 모두에 보험이 적용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에 대한 농어민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관리운영비는 100% 정부가 부담하고 순보험료의 50% 까지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이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자료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정명채 선임연구원 〉

복분자 · 뽕나무(오디) · 땅콩의 묘목 및 씨앗분양안내

정읍지회 문병선 지회장은 복분자 3,000평, 오디 2,000평을 재배하고 있으며, 별도로 오디 실생묘목 30만주와 접목묘목 10만주를 재배하고 있다. 또한 땅콩(팔광) 1만5천평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묘목이나 씨앗을 저렴하게 분양함. 필요한 회원은 아래 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람.

〈핸드폰 : 010-9884-4441, 011-254-3487〉